

미국은 지금

FOMC 發 미국 증시 줄다리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Analyst 김승혁 ocean93@kiwoom.com



Issue Brief

우리가 자는 사이,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미국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 상 20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절반으로 축소했고(4회→2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며 변화된 내년도 물가 경로와('25년 근원 PCE 물가 전망 9월 2.2% → 12월 2.5%)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해 미국 주요지수는 크게 하락했다. 이에 더해 금일 예정되어 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 역시 기술주 불안감을 높여 증시 하락에 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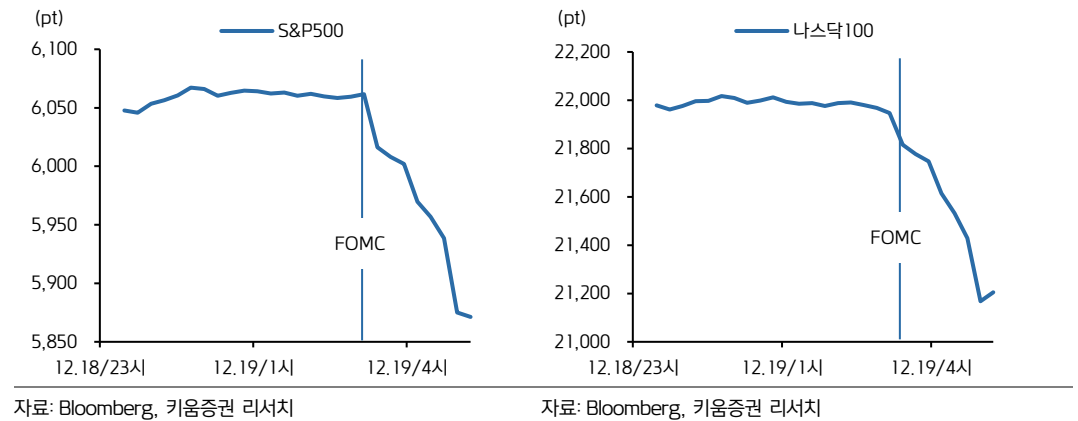
주요 주가지수 별 반응을 살펴보면 6,000pt 레벨대 안착을 시도하던 S&P500 지수는 FOMC 기자회견 이후 -2.9%(12/18) 하락하며 5,872pt 수준으로 되돌려졌고, 20,000pt를 웃돌던 나스닥 지수도 -3.6%(12/18) 하락해 19,392pt에서 마감되었다. 러셀 2000 지수는 금리인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던 만큼 -4.4%(12/18)의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다만, 다우지수는 고평가 부담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만큼 -2.6%(12/18) 정도로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12/18일 기준 산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자유소비재(-4.4%)와 부동산(-4.0%) 섹터가 Top2 Losers였으며,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 필수소비재(-1.7%)는 가장 작은 낙폭을 기록했다. 종목별로 볼 경우 M7 중 테슬라(TSLA, -8.3%), 아마존(AMZN, -4.6%), 메타(META, -3.6%) 등이 크게 하락했고, ASIC(맞춤형 반도체) 기대감 속 최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던 브로드컴(AVGO, -6.9%)과 마벨(MRVL, -6.2%)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월 FOMC 發 '고점 부담 vs 산타 랠리' 사이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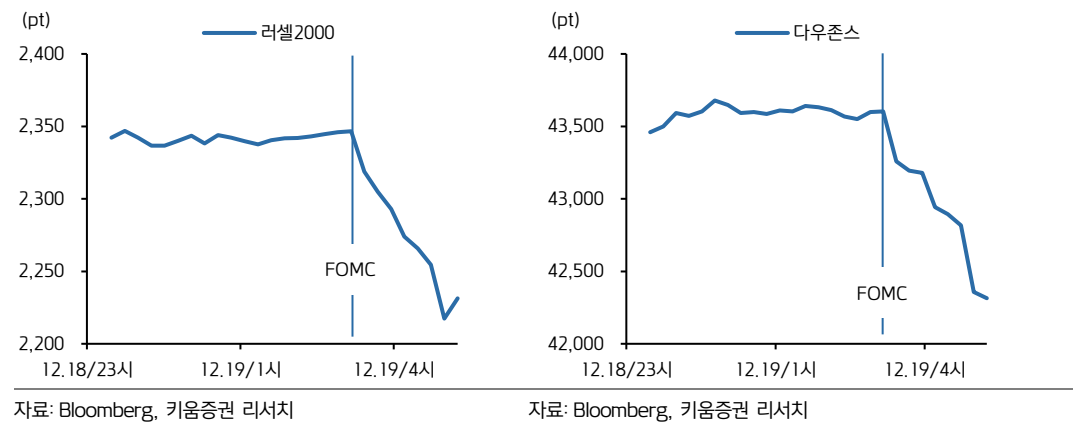
금리인하 속도 둔화라는 재료는 증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재료이지만,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치 중 0.1%p 상향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0.1%p 내려간 내년도 실업률은 증시 입장에서도 긍정적 재료이다. (+), (-) 재료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부정적 재료에만 집중한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과열에 따른 고점 불안,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전일(12/18일) FOMC 이후 테슬라가 기록한 낙폭(-8.3%) 엔비디아가 기록한 낙폭(-1.1%) 대비 큰 것은 이를 반증한다. 10.8만 달러까지 고공 행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 달러 레벨로 회귀한 것 역시 과열된 트럼프 트레이드 불안이 전일 한차례 소화되었다 볼 수 있는 근거이다.

12월 FOMC를 소화하며 미국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과열 우려' vs '새로 부각되는 AI 관련 산업들' 사이에서의 줄다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점 부담을 느낀 주체들은 매크로 요인(ex. 미국 11월 PPI 예상 ↑, 미국 11월 산업생산 부진, 금리인하 속도 둔화 등)을 빌미로 증시 하락을 유도하지만, AI 관련 신규 산업(ex. 추론형 AI, 로봇, 맞춤형 반도체, 양자컴퓨터)들의 성장은 증시 상승을 유도한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과 부진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은 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이며, 증시는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시장이 기대한 산타 랠리는 투자자들의 고점 부담감이 해소되는 시점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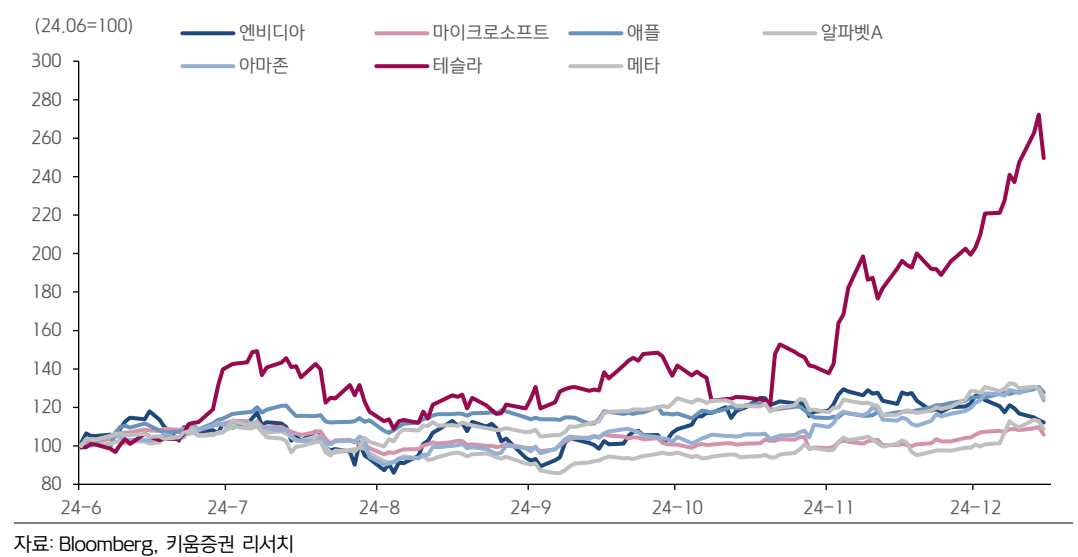
FOMC 이후 주요 주가지수 변화(S&P500 & 나스닥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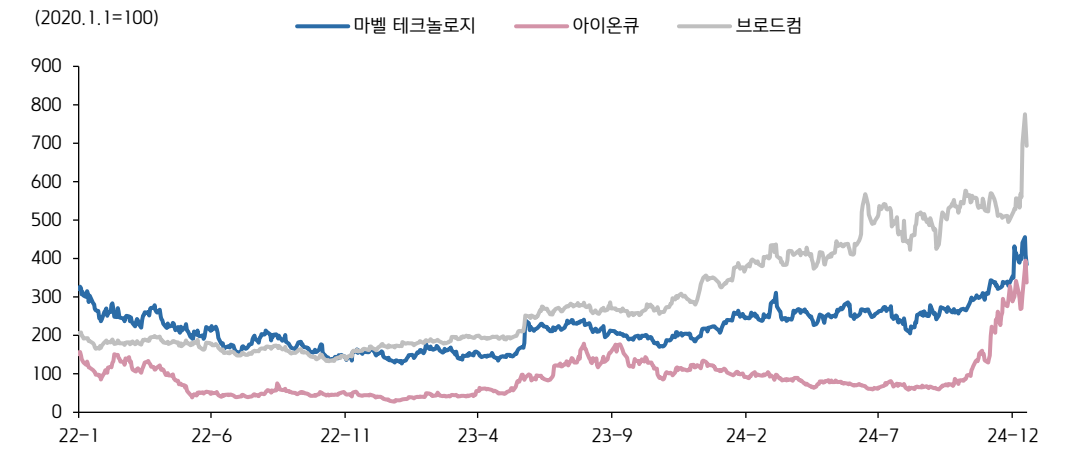
FOMC 이후 주요 주가지수 변화(러셀 2000 & 다우존스)



M7 주가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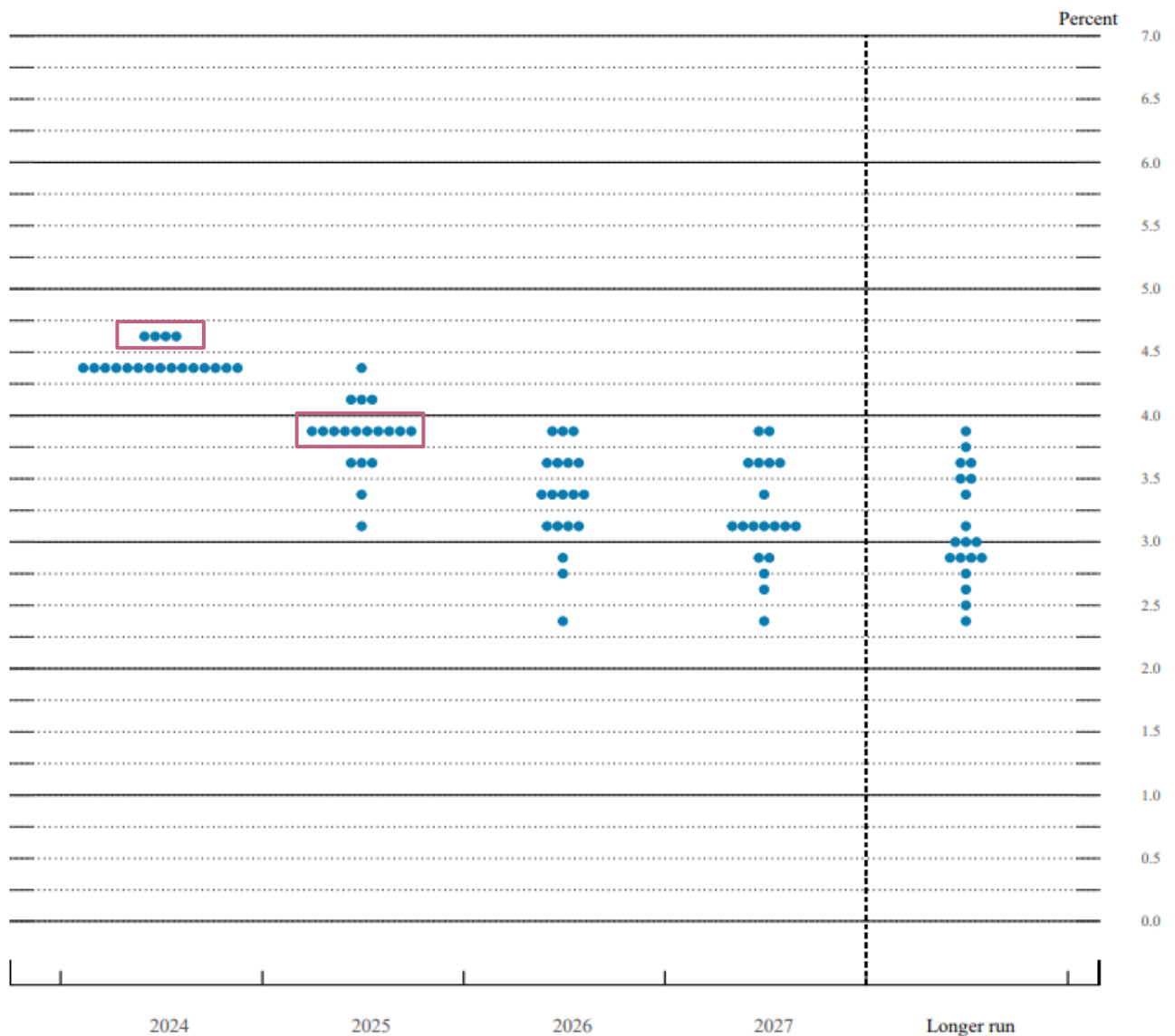


주목받기 시작한 IT 산업(맞춤형 반도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12월 FOMC 점도표 - 12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4명의 위원과 줄어든 25년 금리인하 폭



자료: Fed,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